

	보도자료	2026. 6. 7.(일) 0시 이후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원예작물과장	강상훈	☎ 760-7450
		업무담당자	김주영	☎ 760-745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여름재배용 새로운 쪽파 ‘여름금파’ 품종보호 출원

- 여름철 고온에 강한 품종 선발...쪽파 재배 농가 소득 작물로 기대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쪽파 신품종 ‘여름금파’를 개발해 품종보호를 출원했다.

○ 제주지역 쪽파 재배면적은 2024년 기준 363ha로 전라남도과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주산지다. 특히 잎쪽파는 출하량이 적은 단경기(5~9월)에 가격이 높게 형성돼 농가 소득 향상에 유리한 소득작목으로 꼽힌다.

* 단경기(端境期): 농산물 출하량이 적어 시장 공급이 부족한 시기

○ 단경기인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생육이 떨어지고 병해 발생이 늘어 재배가 쉽지 않다.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, 시중에 유통되는 종구(씨쪽파)도 여러 계통이 섞여 발아와 생육이 고르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.

□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철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자라는 쪽파 품종 개발을 추진해 왔다.

○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무안 등지에서 국내 재래종을 수집하고, 고온기 재배에 적합한 계통을 선발했다.

○ 이후 2025년까지 품종 특성과 수량성을 검정한 결과, 재배 안정성과 생산성이 우수한 ‘제주S-12호’를 최종 선발했으며, 이를 ‘여름금파’로 이름 붙여 품종보호를 출원했다.

- ‘여름금파’는 대조품종 대비 줄기 수는 적은 대신 줄기가 굵고 키가 커 개체당 무게가 무거운 것이 특징이다. 특히 여름철 고온 조건에서도 잎끝마름 증상이 적어 지상부 생육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3년간(2021~2024년) 농가 실증 결과, 10a당 평균 수량은 2,150kg 이상으로 기존 여름 재배 쪽파보다 약 50%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.
- ‘여름금파’는 앞으로 2년간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의 안정성과 균일성이 인정되면 품종보호 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다.
- 농업기술원은 품종보호 등록 이후 우량 종구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보급을 확대해 제주지역 여름재배용 쪽파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- 김주영 농업연구사는 “여름금파 품종보호 출원과 함께 제주 지역 여름재배용 쪽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종구 생산과 보급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